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어머니와 조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지원

The Nursing Behavior and Support of Mother and Grandmother for Infant under 24 Months in Age

장혜자

충북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및 생활과학연구소

Jang, Hye Ja

Education Center of Educare Teacher and Research Institute of College of Human Ecology,
Chungbuk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the nursing behavior and support between mother as a housewife who has the first infant under 24 months in age and grandmother, and to analyze what mother's nursing behavior was affected by that of grandmother. The subjects were 60 pairs of mother and grandmother on mother's side or father's side and the inquiry paper method and interview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analyse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the nursing behaviors in the past and at the present from mother's perception were considerab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in the affection and concern aspects. The second, the perceived nursing behaviors by mother and mother-side grandmother's were considerably different in the educational aspect between two groups and mother-side grandmother's educational behavior was higher than that of mother. The third, mother's nursing support were given by husband at 1st and mother-side-grandmother in 2nd, but that of grandmother by husband at 1st and both mother-side- and father-side-grandmother in 2nd. The fourth, nursing support were not considerably different in all the aspects between two groups.

Key words: infant, mother, grandmother, nursing behavior, nursing support

I. 서론

인간의 성장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진다. 개인에게 사회적 환경으로 영향을 주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영향을 주기도 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가 태어나 초기경험을 하

는 환경을 결정할 뿐 아니라 인간발달에 있어 가장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이 표현되기 전 과거 주관적으로 경험한 부모와 자신에게 기대되는 양육행동의 역할은 내면화되어 성인이 이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갖고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어머니의 영유아기 경험과 이후 어머니로서의 행동사이에 자신의 양육행동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이를 내적실행 모델이라는(Crowell & Feldman, 1991)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Jang, Hye ja
Tel: 043) 261- 3423 Fax: 043- 275-7618
E- mail: jsunnyj@hanmail.net

Stendler(1950)와 Vincent(1951)는 1890년에서 1950년대의 여성잡지에 있는 조언과 새로운 의견들의 변화 그리고 젓먹이는 습관과 훈육에 관한 새로운 주제들을 복합적으로 어머니들이 참고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ronfenbrenner(1958)와 Cohler & Grunedaum(1971), Weiss(1974)은 1930년에서 1960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관대함과 젓을 수유하는 것의 변화는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양육방법을 통해 어머니의 행동은 아동의 행동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는데 초기의 과거 양육경험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많은 연구(Bretherton & Ridgeway, 1991; Bowlby, 1973; 1982; Ricks, 1985; 장미자, 1998; 정혜승, 2000)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현재 유아에게 세대를 통해 전이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듯 어머니의 다양한 양육행동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때조모는 유아를 위한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가정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은 오랜 삶의 경험과 지식 및 지혜를 기반으로 가정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전달을 맡아 왔다. 조모는 자손의 교육과 진로지도를 담당함으로써(김전민, 1994)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조모와 유아의 밀도 있는 관계는 조모나 손자녀 세대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 선이었다. 특히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유아는 조모가 맡아 이유 및 배변 훈련 등의 양육과 놀이, 초보적인 기본습관 등의 모든 것을 담당하였다.

Bengtson(1985)의 조부모역할에서 그들은 가족 안에서 귀족적 신분을 가지나 이 지위에는 규범적인 역할행동 기대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가족상황에 따라서 조모의 제도적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조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석미, 1980; 한경희, 1988; 서동인, 1991; 심수연, 1995)에서 친조모와 외조모는 제도적 지위를 갖게 함으로서 유아들에게 행하는 권위와 지위는 달라진다고 하였다.

조모는 노년기에 새롭게 획득하는 역할로 조모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조모역할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유아와 중간세대인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친조모와 외조모의 자리는 큰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조모는 가족구성원으로 단순하게 자리하기도 하지만 유아 양육의 역할에 참여할 때는 어머니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유아에게 강력한 지원자로서 또한 부모세대의 양육태도에 대한 비판,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Wilson, 1982). 외조모는 친조모보다 자신의 자녀와 상호 밀접한 행동을 더 자주 하며(Myers & Williams - Petersen, 1991), 가장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인 지원자로서의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어머니가 과거 조모의 양육행동을 기억하며 현재 유아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이게 된다. 조모-손자녀 관계에서 서동인(1991)은 친조모와 외조모간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현대가족에서 수행되는 조모의 역할을 훈계자 역할, 물질적 제공자 역할, 대리모 역할, 가계역사 전수자 역할, 손자녀지지도 역할과 생활간섭 역할자로 보고하였다.

조모는 지원체계를 가족과 가족간의 집단에 제공하여 심리적 지원이나 물질적 지원 그리고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유아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친조모는 생활 간섭자 역할에서 수행수준이 높아 양육지원 측면에서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동인, 1991).

우리나라에서 조모와 손자녀 관계가 과거보다는 비중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조모가 행해주는 다양한 지원은 중요하다(홍성애, 1983). 또한 조모와 손자녀에 대한 역할에서 대리양육지원, 애정 표현 및 자발적 원조자, 지혜 전수자, 지원자로서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의 긴장 해소자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음을(이용진, 1981; 한경희, 1988)알 수 있다. 조모의 양육은 오랜 전통중의 하나로서 친조모가 손자녀를 일정기간 동안 양육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와 비교해 볼 때 과거에는 유아가 1년 6개월, 즉, 이유를 하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에서부터 조모가 아기의 양육을 맡아보며 돌보아주기를 하고(유안진, 1990), 걸음마시기 동안 조모와 함께 보내면서 어머니에게 필요한 지원을 조모가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이는 함께 살아왔던 과거 조모와 어머니관계가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며 양육행동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조모와 어머니세대 간의 양육관의 갈등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 어머니세대는 인지적 발달을 강조하는 반면 조모세대는 생활습관의 습득이나 예의, 성격형성, 친교관계망의 강조를 하며, 어머니는 덜 지지하고 있다고 하였다(최기형, 1991). 또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지지만족도 결과(이은숙, 1999)에서 친조모(14%)보다는 외조모(30%)에게 더 만족하고 있다는(황영주, 1996)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의 고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온강 외(1999)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성 내용 중 정서·정보적 지원요인과 도구적 지원 역할을 하는 요인들 즉, 돌보기역할, 상호작용역할 요인을 조모의 양육 지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24개월 미만의 첫째 아를 가진 영아기 어머니와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 세대간의 양육행동이 과거와 현재를 통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또한 조모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지원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의 요인을 알아보고, 양육의 실제에서 영유아 발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영아기 어머니가 지각한 과거와 현재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는가?
2. 영아기 어머니와 외조모간의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는가?
3.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지원은 어떠한가?
4. 양육지원순위에 따른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지원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만 24개월 미만의 첫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전업주부 어머니와 그 아이의 외조모 또는 친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만 24개월 미만의 첫아이를 둔 연구대상자 60쌍에게 2000년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직접 방문면접(50%)과 우편 및 전화(50%)를 이용한 면접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120부(100%)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에서 어머니는 28세 이하가 31명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모의 연령	28세이하	31(51.6)	조모의 구분	친조모	30(50.0)
	29세 이상	69(48.4)		외조모	30(50.0)
	계	60(100)		계	60(100)
모의 학력	고졸이하	29(48.4)	조모의 연령	60세 미만	41(68.3)
	대졸이상	31(51.6)		61세 이상	19(31.7)
	계	60(100)		계	60(100)
자녀의 연령	15개월 이하	29(48.3)	조모의 학력	초등졸이하	27(45.0)
	16개월 이상	31(51.6)		중졸	17(28.4)
	계	60(100)		고졸이상	16(26.6)
모의 6세미만 거주지	농·어촌	29(48.3)	조모의 주거 거리	함께 거주	12(20.0)
	중·소도시	15(25.0)		같은 시·읍에 거주	22(36.7)
	광역시·대도시	16(26.7)		같은 도에 거주	10(16.7)
	계	60(100)		타 도에 거주	16(26.6)
					계

(51.6%), 29세 이상은 29명(48.4%)이었다. 조모의 연령은 60세 미만이 68.3%, 61세 이상이 31.7%로 친조모의 연령은 60세미만이 18명(60%), 61세 이상이 12명(40%)으로 나타났으며, 외조모의 연령은 60세미만이 23명(76.7%), 61세 이상이 7명(23.3%)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아 어머니의 과거 및 현재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randmother-Mother-Infant Interaction” (Jarvos & Creasesy, 1987)을 Myers & Williams - Petersen(1991)이 그들의 연구에 맞게 수정한 질문지를 장혜자(2001)가 한국의 문화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척도는 <표 2> 과 같이 4개의 하위영역인 훈육영역, 애정영역, 기본생활영역, 관심영역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지원 척도는 <표 3>로 현 온강, 유가효, 조복희, 유안진, 이완정과 홍콩의 Sing, 미국의 Miller와 Schvandteldt 등(1999)의 공동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원척도를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지원척도로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청주시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와 어머니 30쌍에게 질문을 하였다. 질문지는 2000년 7월 3일부터 30일까지 연구대상인 만 24개월 미만 첫아이를 둔 전업주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거나 거주하지는 않아도 어머니와 쌍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외조모 또는 친조모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우편으로 질문지를 응답받았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도구의 적절성, 신뢰도를 검토한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서울, 대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개월 미만의 첫아이를 둔 연구대상자 60쌍에게 2000년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직접 방문면접(50%)과 우편 및 전화(50%)를 이용한 면접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조상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값과 표준편차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상관분석을 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변인 내용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계수
훈육 영역	4	1, 4, 18, 27	.58
애정 영역	7	2, 9, 12, 14, 20, 22, 25	.75
기본생활영역	8	3, 10, 15, 16, 17, 19, 21, 23	.73
관심 영역	8	5, 6, 7, 8, 11, 13, 24, 26	.85
전체	27		.82

표 3.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지원 척도

지원변인 내용	문항 번호	조모의 Cronbach's α	어머니의 Cronbach's α	
정서·정보적 지원	12, 13, 14, 15	.83	.72	
도구적역할지원	일상적 돌보기	1, 3, 4, 5, 6, 7	.88	.77
	상호작용역할	2, 8, 9, 10, 11	.82	.86

III. 연구결과

1. 영아기 어머니가 지각한 과거와 현재의 양육행동

영아기 어머니가 지각한 과거 양육행동과 현재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본 결과는 <표 4> 와 같다.

어머니가 지각한 과거 외조모의 훈육영역은 현재 어머니의 훈육영역($r = .29$)과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과거 외조모의 애정영역은 과거 외조모의 관심영역($r = .68$)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현재 어머니의 관심영역($r = .34$)과도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과거 외조모의 기본생활 영역은 외조모의 관심영역($r = .35$)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현재 어머니가 행하는 자녀에 대한 기본생활 영역($r = .37$)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외조모의 관심영역은 현재 어머니의 관심영역($r = .37$)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현재 어머니가 보여주는 애정영역은 어머니의

관심영역($r = .56$)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또한 기본생활영역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행하는 관심영역($r = .37$)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과거 외조모의 양육행동은 현재 양육행동의 변인들과 서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현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다.

2. 영아기 어머니와 외조모가 지각한 양육행동 관계

영아기 어머니와 외조모가 지각한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5> 와 같다.

외조모가 지각한 훈육영역은 외조모의 애정영역($r = .44$)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훈육영역($r = .53$)과도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영역($r = .44$)과도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4. 영아기 어머니가 지각한 과거와 현재의 양육행동 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1. 과거의 훈육영역								
2. 과거의 애정영역	.01							
3. 과거의 기본생활 영역	.21	.17						
4. 과거의 관심영역	-.02	.68**	.35**					
5. 현재의 훈육영역	.29*	.05	-.02	-.09				
6. 현재의 애정영역	.01	.24	.11	.18	.18			
7. 현재의 기본생활 영역	-.04	.09	.37**	.27*	.04	.08		
8. 현재의 관심영역	.08	.34**	.19	.37**	-.00	.56**	.37**	

* $p < .05$ ** $p < .01$

표 5. 영아기 어머니와 외조모가 지각한 양육행동

변 인	1	2	3	4	5	6	7	8
1. 외조모의 훈육영역								
2. 외조모의 애정영역	.44*							
3. 외조모의 기본생활 영역	.17	.00						
4. 외조모의 관심영역	.36	.59**	.27					
5. 어머니의 훈육영역	.53**	.09	-.03	-.02				
6. 어머니의 애정영역	.44*	1.00**	.00	.59**	.09			
7. 어머니의 기본생활 영역	.20	.35	.64**	.33	.02	.35		
8. 어머니의 관심영역	.10	.61**	-.01	.65**	-.06	.61**	.42*	

* $p < .05$ ** $p < .01$

외조모가 지각한 애정영역은 외조모의 관심영역($r = .59$)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애정영역($r=1.00$)과는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외조모가 지각한 기본생활영역은 어머니가 지각한 기본생활영역($r = .64$)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외조모의 관심영역은 어머니의 애정영역($r = .59$), 어머니의 관심영역($r = .65$)과 매우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애정영역은 어머니의 관심영역($r = .61$)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기본생활영역은 어머니의 관심영역($r = .42$)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외조모와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양육행동은 각 영역별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양육행동이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아 두 세대간에 전이되고 있음을 예측해 주고 있다.

3.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지원

1) 조모가 받은 양육지원

조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받았던 양육지원의 순위를 본 결과는 <표 6> 와 같다.

조모가 과거 자녀를 양육할 때 도움을 받고 있는 순위를 점수화(1순위 1점, 2순위 2점, 3순위 3점, 이하 4점)하여 평균 순위를 산출하였다.

표 6. 조모가 받은 양육지원 순위

구분	M(SD)	F
남편	1.82(1.11)	34.98***
친조모	2.58(1.05)	
외조모	3.25(1.07)	
친가족	3.65(.71)	
외가족	3.27(.88)	
대리양육자	3.83(.46)	

*** $p < .001$

남편, 친조모, 외조모, 친가족, 외가족, 대리양육의 평균순위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반복측정 변량분석의 결과, 조모가 받았던 양육지원의 평균순위는 대상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4.98, p < .001$).

남편의 평균순위가 1.82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은 3.83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2) 어머니가 받은 양육지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았던 양육지원의 순위를 보면 <표 7> 과 같다.

표 7. 어머니가 받은 양육지원 순위

구분	M(SD)	F
남편	1.60(.83)	35.63***
친조모	2.68(1.05)	
외조모	2.90(1.22)	
친가족	3.67(.60)	
외가족	3.33(.82)	
대리양육자	4.00(.00)	

*** $p < .001$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순위를 점수화(1순위 1점, 2순위 2점, 3순위 3점, 이하 4점)하여 평균 순위를 산출하였다.

남편, 친조모, 외조모, 친가족, 외가족, 대리양육의 평균순위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 변량분석결과, 어머니가 받은 양육지원의 평균순위는 대상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63, p < .001$). 남편의 평균순위가 1.60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은 4.00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 우리나라 가족은 친조모가 함께 거주한 확대가족 시대에서도 남편의 도움을 가장 많이 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이 친조모와 외조모인 것을 보아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조모들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가족문화의 특성상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는 대리모 보다 친조모의 지원이 외조모보다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양육지원 순위에 따른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지원

순위	구분	어머니			조모		
		외조모	친조모	t	외조모	친조모	t
1 순위	정서·정보적지원	2.34(.48)	2.44(.051)	-.77	2.03(.48)	2.23(.54)	-1.59
	일상적돌보기	2.94(.47)	2.14(.51)	1.19	1.88(.48)	1.93(.45)	-.42
	상호작용역할	2.56(.46)	2.47(.52)	.68	2.20(.35)	2.36(.43)	-1.57
	전체	2.40(.39)	2.33(.45)	.57	2.02(.36)	2.15(.36)	-1.39
2 순위	정서·정보적지원	2.33(.53)	2.37(.54)	-.24	2.03(.51)	2.07(.65)	-.28
	일상적돌보기	2.00(.52)	1.98(.40)	.19	1.93(.47)	1.94(.67)	-.07
	상호작용역할	2.51(.43)	2.45(.49)	.51	2.09(.44)	2.26(.59)	-1.30
	전체	2.24(.39)	2.25(.36)	-.12	2.01(.40)	2.08(.57)	-.58
3 순위	정서·정보적지원	2.20(.53)	2.30(.45)	-.79	1.97(.52)	1.98(.60)	-.12
	일상적돌보기	1.86(.46)	1.81(.48)	.37	1.67(.48)	1.74(.57)	-.49
	상호작용역할	2.24(.44)	2.35(.52)	-.91	1.99(.41)	2.05(.54)	-.49
	전체	2.08(.37)	2.12(.39)	-.47	1.86(.39)	1.91(.51)	-.44

4. 양육지원 순위에 따른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지원

조모와 어머니가 받은 양육지원을 순위에 따라 외조모와 친조모간의 차이를 본 결과 <표 8>과 같다.

각 순위에 따라 외조모와 친조모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모가 자녀를 양육했을 때와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면서 받고 있는 양육지원은 친조모와 외조모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받게 되는 양육지원은 시대가 변화되었어도 동일한 요구와 지원의 필요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자녀를 양육할 때 조모와 어머니 모두 양육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4개월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조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지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과거와 현재의 양육행동 관계에서 과거 ‘훈육영역’은 현재의 ‘훈육영역’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과거 ‘애정영역’은 현재의 ‘관심영역’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과거

‘기본생활영역’은 현재의 ‘기본생활영역’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과거 ‘관심영역’은 현재의 ‘관심영역’과 또한 ‘기본생활영역’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과거 아동기때 경험한 행동들에 대한 반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아기 어머니가 외조모에게 받은 행동들이 실제 양육행동을 할 때 간접적·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관심과 애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두 세대간에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아기 어머니와 외조모가 지각한 양육행동 관계는 외조모의 ‘훈육영역’은 어머니의 ‘훈육영역’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외조모의 ‘애정영역’은 어머니의 ‘애정영역’과 매우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외조모의 ‘기본생활영역’은 어머니의 ‘기본생활영역’과도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외조모의 ‘관심영역’은 어머니의 ‘관심영역’과도 높은 정적상관을 보여 외조모와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이 두 세대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모세대는 아동을 때리거나 창피를 주거나 놀라게 하는 경향은 감소했으나, 아동을 고립시키는 경향은 증가했다고 한 결과는(김현주, 1996) 변화되어져 가는 양육행동의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었다.

셋째, 조모가 받은 양육지원은 남편이 1순위, 친

조모가 2순위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받은 양육지원은 남편이 1순위, 친조모와 외조모가 2순위로 나타났다. 시대를 불문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은 남편의 지원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모세대는 확대가족의 형태가 많았던 것을 추측해 보아 친조모의 지원도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조모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지원 순위에 따른 양육지원 영역은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자녀를 양육할 때 받게 된 양육지원에서 각 영역별 외조모와 친조모가 구분되지 않는 지원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양육의 책임들이 가족공동의 역할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종단적인 연구로 발전시켜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이에 따른 양육지원의 차이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60쌍이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많은 연구대상을 구하여 우리나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지원

참고문헌

- 김건민(1994). 유아교육에 있어 할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1996). 어머니가 지각한 친정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인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수연(1995). 할머니의 역할 수행과 교육적 역할의 기대에 대한 3세대간의 비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199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문음사.
- 이용진(1981). 조모의 자녀양육대행에 대한 취업모의 역할기대와 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의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혜자(2001). 영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세대의 지각,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제 25권.
- 정혜승(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석미(1980).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구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기형(1991). 조부모와 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인식비교와 세대간 인식일치 정도가 유아의 정서·사회적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11(12):159-170.
- 한경희(1988). 유아기 자녀양육에서 할머니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강 외 7인(1999).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 미발표
- 황영주(1996).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사회적지지가 자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홍성애(1983). 여성노인의 가정내 지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ngtson, V.L.(1985). Diversity and Symbolism in Grandparental Roles. In V.L. Bengtson and J. F.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 Bowlby, J.(1973). *The attachment and loss*(Vol. 1.). New York: Basic.
- _____.(1982). *The attachment and loss*. (2nd ed. vol. 1.). New York: Basic
- Brandt, P.A. & C. Weinert(1981). *The Personal*

- Resourec Questionnaire. A social measure, *Nsg Research*, 30(5):227-280.
- Bretheron, I., Biringen, Z., & Ridgeway, D.(1991). The parental side of attachment. In K. Pillemer, & K. McCartney (Eds.), *Parent - 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pp. 1 - 24). NJ: LEA.
- Bronfenbrenner, U.(1958). Socialization and social class through time and space. In E. E. Maccoby, T.M. Newcomb, & E.L. Hartley (Ed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3rd ed pp. 400-425.). New York: Holt.
- Cohler, B.J., & Grunebaum, H.U. & Weiss, J.L, and Moram D.L.(1971). The Childcare attotide of two generation of mothers. *Merrill-Palme Quarterly*, 17:3-17.
- Crowell, J.A., & Feldman, S.S.(1991). Mother's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 Psychology*, 27(4):597 - 605.
- Myers, B.J. and Williams-Peterson, M. G(1991). Beliefs and memories about child-rearing across generation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7:111-128.
- Ricks, M.H.(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211 - 227).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Stendler, C.B.(1950). Sixty years of child training practices. *J. of Pediatrics* 36:122 - 136.
- Vincent, C.E.(1951). Trends in infant care ideas. *Child development*, 22:199-20.
- Weiss, R.S.(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ng Unto Others, Englewood. Cliffs*, (pp. 23-24). NJ: Prentice-Hall.
- Wilson, K.B.(1982). The legal rights of grandparents; A preliminary discussion. *The Gerontologist*, 22:67-71.

(2003. 2. 17 접수; 2003. 4. 7. 채택)